

■ 주제강연 2

윤덕룡(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)

： 평화와 통일을 위한 경제적 과제와 방향

- 북한은 1990년 이후 경제붕괴로 빈곤과 기아의 문제를 겪으며 소위 고난의 행군기간을 지나 오면서 자연발생적 시장경제가 확산되고 김정은 정부이후 북한경제의 성장률이 높아진 바 있으나 경제제재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등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.
 -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향후 통일을 달성하려면 남북한 양 지역이 각기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
 - 이를 위해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와 그 극복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

- 평화를 위한 경제적 과제
 - 북한의 빈곤과 기아문제가 해결되어야 사회적 불안과 현상타파 압력이 감소될 것
 - 북한은 1990년대 이래로 빈곤과 기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세계식량계획(WFP)과 FAO는 금년에도 '외부식량 원조가 필요한 위기국(Countries in Crisis requiring external assistance)'으로 분류된 37개국에 북한을 포함
 - 북한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하여야 빈곤극복의 희망을 가질 수 있으나 북한의 경제성장은 아직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지 못함

- 통일을 위한 경제적 과제: 통일을 위한 경제적 과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
 - 첫째, 남북한간 상호 윈-윈(win-win)이 가능한 경제통합 조건을 충족해야함. 구체적으로는 현재 소득기준으로 한국의 4.3%에 불과한 북한 지역 생산성이 한국의 60%수준까지 도달해야 함
 - 둘째, 사회적 안전망 확충으로 통합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함. 점진적 통합으로 생산성의 수렴이 이루어져도 한국기업과 직접적인 경쟁에 노출되거나 평균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생산자들은 경제적으로 통합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움. 따라서 충격흡수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사전적으로 확충되어야 통일을 유지할 수 있음

- 결론: 북한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확보하여야 빈곤극복의 희망을 가질 수 있으므로 남북협력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이 평화안정과 통일준비에 기여할 것
 - 대북지원 및 남북협력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에 상호 이득이 되는 윈-윈(win-win) 협력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초기 남북경협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서는 상호이익구조 확보 및 초기에 가시적 성과실현이 가능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 필요